

에세이 · ALDUS LIBRIS

물결이 머문 자리

바닷가 작은집에서 쓴 여섯 번의 안부

서이솔 지음

Where the tide stays

차례

01 창을 여는 일

02 느린 아침의 쓸모

03 남겨 둔 의자

04 비가 오는 방향

05 멀리 가지 않아도

06 다시, 여기에서

샘플에는 첫 장의 일부를 담았어요.



01 / 창을 여는 일

바다는 매일 다른 곳에 있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나는 창문부터 열었다. 오래 닫혀 있던 경첩이 짧게 울었고, 그 뒤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바다가 보이면 무언가 대단한 말을 하게 될 줄 알았다. 그런데 나는 짐을 바닥에 놓고 한참 동안 빈 창틀만 만졌다.

도시에서는 아침마다 알람을 세 번 맞췄다. 일어날 시간, 나가야 할 시간, 이미 늦은 시간. 여기서는 세 번째 알람이 울려도 갈 곳이 없었다. 나는 그 사실이 조금 무서웠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을 때 내가 무엇을 할 사람인지 아직 몰랐기 때문이다.

다음 날에는 창문 옆에 의자를 가져다 놓았다. 찻잔 하나를 올릴 만큼만 선반을 비웠다. 그런 뒤에 바다를 보았다. 어제보다 멀어져 있었다. 바다는 늘 거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매일 다른 곳에 있었다.

오늘의 속도를
파도에게 묻지 않기로 했다.

의자를 놓는 일은 뜻밖에 오래 걸렸다. 벽에 붙이면 창 아래가 보이지 않았고, 창에 가까이 놓으면 빛이 눈을 찔렀다. 나는 의자를 몇 번이나 옮겼다. 방향을 정하고 앉았을 때는 벌써 차가 식어 있었다. 식은 차도 나쁘지 않았다.

전에는 이런 시간을 실패라고 불렀을 것이다.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 오전. 대답하지 못한 질문. 비어 있는 달력. 그런데 창밖의 돌 하나가 물에 잠겼다가 다시 드러나는 동안, 나는 그 말들을 하나씩 고쳐 쓰고 싶어졌다.

오늘은 조금 천천히 있었다. 창문을 열었고, 의자를 옮겼고, 차가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것만으로도 하루의 모양이 생겼다. 나는 창틀 위에 작은 돌을 올려 두었다. 내일도 이만큼의 일을 해 보자는 뜻이었다.

물결이 남긴 문장

바닷가 작은집에서 쓴 여섯 번의 안부

글	서이솔 (가상 작가)
기획	느린물결 기록실 (가상 브랜드)
편집·디자인	Aldus Libris
제작	2026년 10월
파일	포트폴리오 발췌본 · 6쪽

가상 브랜드로 만든 샘플이에요.

실제 출간·판매된 책이 아니에요.

글과 이미지는 이 샘플을 위해 새로 만들었어요.

이야기의 인물·단체·사건은 모두 허구예요.